

광주 'R&D특구' 말뿐 정부 투자 전국 최하위

전남 제주 제외 꽂찌…30% 대전시 편중

연구개발사업 지역·대학간 불균형 심각

정부가 광주를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지만 투자는 외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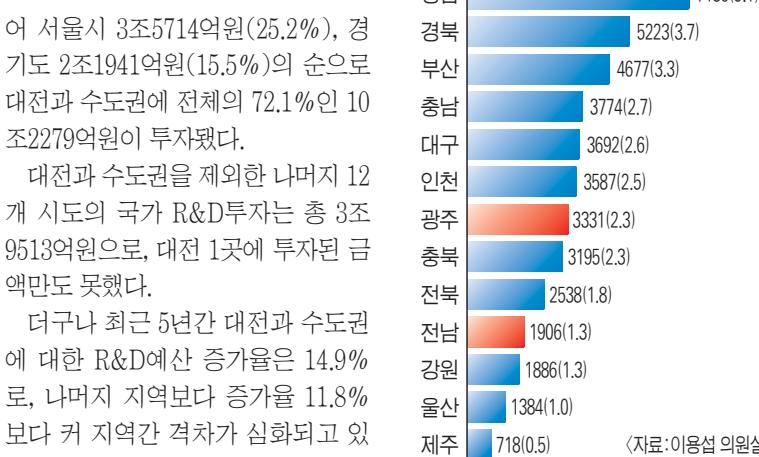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역별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사업비로 총 14조 1793억원이 투자됐다. 이 중 광주시에는 3331억원이, 전남에는 1906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2.3%와 1.3% 수준으로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대기업이 많아 기업R&D 투자가 많은 울산이 다음으로 꽂찌, 전남은 제주를 제외한 7개 도 가운데 최하위다.

특히 광주의 경우 R&D특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9년 3172억원, 2010년 3146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5년간 R&D 예산 증가율도 광주 8.6%, 전남 9.9%로 전국 평균 13.9%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가 R&D특구로 지정됐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시는 전체 사업비의 28.9%인 4조 1037억원이 투자돼 끌립 현상이 극심했다. 이



어 서울시 3조 5714억원(25.2%), 경기도 2조 1941억원(15.5%)의 순으로 대전과 수도권에 전체의 72.1%인 10조 2279억원이 투자됐다.

대전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의 국가 R&D 투자는 총 3조 9513억원으로, 대전 1곳에 투자된 금액만도 못했다.

더구나 최근 5년간 대전과 수도권에 대한 R&D 예산 증가율은 14.9%

로, 나머지 지역보다 증가율 11.8%

보다 커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정대학 평준 현상도 심각했다.

최근 3년간 국가R&D 투자의 연구 책임자 소속 대학별 현황을 보면 서

울대·KAIST·포항공대·연세대·고려대 등 5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들 5개 대

학의 국가R&D 투자는 1조 271억

2400만원으로, 전체 3조 665억 7600만

원의 3분의 1을 넘는 33.49%를 차지

했다. 이들 5개 대학을 제외한 290여

개 대학에 나머지 2조 394억 5200만원이 나눠 투자됐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졌다. 중소

기업 한 곳당 국가R&D 연구비는 지난해 3억 6500만원인데 반해 대기업



기아차 'K3' 돌풍

출시 19일만에 계약 1만대 돌파

기아자동차 준중형 세단 'K3'가 영업 개시 12일 만에 1만대 이상 계약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출시한 K3가 출시일 기준으로 19일,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만인 지난 5일까지 1만 1097대가 계약됐다고 7일 밝혔다.

1만대 계약은 이전 모델인 포르테보다 한 달 가량 빨리 달성한 것

이며, 올해 판매 목표인 1만 9000대의 58% 수준으로 올해 목표를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에서도 지난달 18일 공식 출고 이래 9일(영업일) 만에 3616 대가 팔려 준중형 차급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K3의 인기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스타일 ▲뛰어난 성능과 연비 ▲텔레매틱스 서비스

UVOC(유보)·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등 동급 최초로 적용된 최첨단 편의사양 등 K3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기아차는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

되는 내년에는 5만 5000대, 2014년

에는 6만대로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结반만 결제해도 여행 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 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신약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갈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 가능합니다(인원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 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 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치열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사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아본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협력업체비용없음

※ 고객의 회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사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삼성전자 갤럭시

브랜드 가치 1위

2위는 KB국민은행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리즈인 갤럭시가 국내 브랜드 가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7일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갤럭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인 BSTI(Brand Stock Top index)는 갤럭시가 937점으로 2위인 KB국민은행(921점)을 크게 앞섰다.

특히 KB국민은행은 2분기에 급등한데 이어 이번에도 3계단이나 상승했다.

이에 비해 2분기 2위였던 네이버는 최근 여러 악재가 불거지면서 6위까지 하락했다고 브랜드스탁은 분석했다.

이밖에 이마트(3위), olleh(5위), 롯데백화점(8위), 신한카드(10위) 등 각 부문 대표 브랜드들이 10위를 들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차를 대표하는 BMW는 31위로 떨어졌고 중형차 대표 브랜드인 쏘나타는 15계단 하락한 58위로 내려앉았다.

박기주 케이디파워 대표

내일 오후 광주 특별강연

80만원으로 시작해 매출 1700억원을 올린 전력IT시장 선두주자 박기주(주)케이디파워 대표가 9일 광주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제4회 이화아카데미' 행사에 박 대표를 초청한 것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종기 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 대표는 강연에서 80만원으로 시작해 17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기 까지의 성공스토리와 융합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화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광주전남중기청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광주전남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062-360-9105)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을철 두피관리 제품 인기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백화점에서도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다. 7일 광주신세계 두피 전문 브랜드인 '르네퓌테르'에서 직원들이 두피케어 기획세트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光銀 대출금리 낮고 예금은 높아

예대금리차 3.3%…6대 지방은행중 두번째로 낮아

광주은행 6대 지방은행 '예대금리차'

광주은행의 6대 지방은행 '예대금리차' 순위가 경남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수익성 위주 영업행태를 벗어나 은행 본연의 공정성, 공공성 역할에 충실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가 낮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적게 받고, 고객들이 맡긴 예금에는 이자 더 주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08년~2012년 상반기) 동안 8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금리 현황'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6대 지방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금리에서

경남은행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대 시중은행 중 시티은행은 평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대출금리, 수

신금리, 가계대출금리 등 모든 지표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광주은행은 예대금리차 3.33%로 평균보다 0.25%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리도 6.51%로 평균보다 0.17% 포인트 낮았으며 가계대출금리도 6.59%로 평균보다 0.1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반면 수신금리는 3.18%로 평균보다 0.08% 포인트 높아 고객들에게 짚어지면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에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대 시중은행 중 시티은행은 평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대출금리, 수

로또복권

(제514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승자
1	5	20	26	35	42
등 위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451,055,500			3
2					